

<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◎ <지식>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.

<하나>를 가르쳐 주면,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.

1. <주를 믿는 자들>은 주 안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.

2. <주 안의 지식>은 ‘주님만이 가르치는 지식’ 이다.

◎ 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.

3. <주의 마음>을 알아야 한다. 그리고 <주의 생각>도 알고, <그 뜻>도 알아야 한다. <믿기만 하는 것>은 ‘기본’ 이다. 믿어야 주가 자신의 마음도, 생각도, 뜻도 전해 준다. 안 믿으면, 그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전해 주지 않는다.

4. <유대 종교인들>은 하나님을 믿었으니, ‘기본’ 은 됐다.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도, 생각도, 뜻도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다. 배웠으면, 바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알았을 것이다.

5.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‘배워야’ 된다. 거기에 대해 배워야 되는데, 그러지 않아서 실패하고 망한다.

6. <하나님을 믿는 목적>은 ‘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

실천하기 위함’이다. 이것을 알아야 한다. <믿음>은 ‘믿음’에서 끝나면 안 된다. <믿음>에서 끝나면 유익이 없다. 그러면 믿은 자나, 안 믿은 자나 같다.

7. <이스라엘 민족>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‘신약’에 대해서 몰랐고, ‘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’을 몰랐다. 왜? <하나님의 지식>을 몰랐기 때문이다. 하나님이 ‘구약’만 사랑하는 줄 안 것이다. 선지자들이나, 제사장들이나,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알고 빨리 전했어야 됐다. <지도자들>이 모르면, 전체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. <이 시대>도 그러하다. <주의 입>에서는 나갔으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전체가 몰랐다는 것이다. 그래서 주가 늘 말씀하지 않느냐. “확실히 알아라. 확실히 전해 줘라.” - 이것이 그리도 크다.

8. <구약>은 율법의 시대, <신약>은 믿음의 시대, <성약>은 실체 시대다. <기성>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보고, 앞으로 실체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다.

9. 야고보가 말하기를, “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.” 했다. 이는 마치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는 것과 같아서, 그런 경우에는 육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영혼이 없는 고로 하늘나라로 못 간다. <믿음>만 있고 ‘실체’가 없으면 이와 같다.

10. <믿음>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11. <선생>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는 것을 바로 안다. <뜻>이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그 뜻을 기어이 이루시니, 그것으로 바로 아는 것이다.
12. <믿음>만 있고 안 하면, ‘하나님의 뜻’ 이 돌아간다. 그래서 선생은 정신을 못 차리게 빨리 행한다. 마치 운동할 때 빠르게 행하듯 한다.
13. <절대 믿는 것>은 ‘첫 번째 관문’ 이다. <아는 것>은 ‘두 번째 관문’ 이다. 가령 어떤 집에 들어가면 좋은 것도 많고, 잘 대해 준다는 것을 믿었으면, 그다음에는 ‘그 집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, 어떻게 문을 따야 되는지’ 를 알아야 된다.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. 그다음에 알고 들어갔으면, 그때는 대접만 받으면 끝난다. 이같이 <믿는 자>도 그러하다. 믿고, 그다음에 알아서 아는 대로 행했으면, 그다음에는 얻기만 하면 된다.
14. <주>를 믿어도 ‘주의 마음과 생각과 뜻’ 을 모르면 실패하노니, 이를 깨닫고 행할지어다.
15. <주>를 믿고, <주>께 묻고 행하기다.
16. <섭리사>는 ‘한 몸’ 이다. <각 지체, 각 사명>이다. 고로 각 지체, 각 사명을 알고 대하여라. 이를 모르면, 서로 막고 부딪힌다.

17. <주를 알고, 주를 믿는 자들>은 알아야 할 것이 많다.
18. 지금, <하나님의 지식>도 배우고, <성령>에 대해서도 배우고, <주 안에서 사는 삶>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 한다.
19.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니, 곧 ‘쫓개는 것’이다.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더러운 것을 쫓개서 드리지 않았다. <쫓개는 역사>를 안 하면, 사탄이 개입한다. 고로 늘 ‘쫓개는 것’에 대해 알고, 쫓개 낼 것은 쫓개 내야 된다. <선>과 <악>을 쫓개야 된다.
20. <하나님의 말씀>으로 쫓개야 된다. <말씀>은 ‘검’이다.
21. 하나님과 성자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, “끊을 것을 끊고, 자를 것을 자르지 않으면 내게 화가 일어난다. 안타까워도, 끊을 때 꼭 자르고 끊어라.” 하셨다. <돈>을 투자했어도,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하고, 나중에는 상상도 못 하게 손해가 간다. <사람>도 그러하다. <끊고 자르는 것>을 빠르게 해야 된다. 이것이 그렇게도 크다.
22. <시간의 지식>에 대해 알고, 시간을 잘 써야 된다. <시간>이 귀한 것은 아는데, ‘쓰는 것’을 못하면, 이는 마치 하나님을 믿었어도 근본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.
23. <이성에 대한 지식>이다. 100% 알고 행하기다. 100% 못 하면, 100% 황금성 천국에는 못 간다.

24. <사랑>은 ‘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’ 이라 100% 완성해야 된다.
25. 그릇이든, 작품이든 ‘미완성’ 은 궁에 쓰이지 못한다.
26. <글씨를 쓸 때>도 점 하나 빠지면 다른 글자가 되든지, 혹은 제대로 글자가 안 된다. 이같이 <사랑>도 ‘완전과 온전함’ 에서 하나만 빠지면 그러하다.
27. <교통법>에 대해 모르면 법에 걸리고, 모르는 만큼 사고 나서 죽고 다친다. <하나님에 관한 것>과 <세상에 관한 것>도 그러하다. <무지>가 ‘사탄’ 이다.